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① 07. ② 08. ① 09. ② 10. ⑤  
 11. ②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③ 17. ③ 18. ③ 19. ④ 20. ③

### 1. 맹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를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는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맹자는 인간의 선천적 본성을 선하다고 보고, 선한 본성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고, 교육을 통해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化性起偽(화성기위))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 ②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계(戒), 정(定), 혜(慧)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 ③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경지[逍遙(소요)]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 ⑤ 친소(親疏)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兼愛(겸애))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 2. 흠과 벤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공감의 원리를 강조한 흠, 을은 공리의 원리를 강조한 벤담이다. 흠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지만 정념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흠은 선악을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③ 벤담에 따르면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쾌락과 고통뿐이므로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원인이 된다.
- ④ 벤담은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보면서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보았다.
- ⑤ 흠은 공감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통해 도덕적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공감의 원리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보았다. 반면에 벤담은 공감의 원리가 쾌락의 증가가 아니라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를 승인하므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3. 에피쿠로스와 밀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밀이다. 밀은 쾌락을 감각에서 비롯되는 저급

한 쾌락과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인 정신 능력에서 비롯되는 고상한 쾌락으로 구분하였다. 밀에 따르면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 상상력, 도덕적 감정과 같은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욕구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② 에피쿠로스는 신이 정념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밀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쾌락 추구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벤담의 쾌락주의를 계승하였다.
- ⑤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밀은 행위자 자신의 쾌락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4. 석가모니와 장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석가모니이고, 을은 장자이다. 석가모니는 탐욕과 집착, 성냄, 어리석음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삼학(三學), 즉 계(戒), 정(定), 혜(慧)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자기중심적 편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통해 수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강조하였다.
- ②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게 되면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 ③ 장자는 도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 만물 어디에나 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장자는 만물이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물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 정약용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인간 본성에 본래 내재된 선한 마음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四德)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② 정약용은 선이나 악 중 어느 쪽을 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하늘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성(性)은 단지 기호(嗜好)이며, 인간의 성에는 사덕이 내

재되어 있지 않다.

④ 정약용은 인간의 성을 기호로 파악하고, 인간의 기호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여 악은 아니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형구(形軀)의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 6. 지눌과 원효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지눌이고, 을은 원효이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축적된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든 일이므로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지눌은 정(定)이 마음의 본체이고 혜(慧)는 마음의 작용으로 정과 혜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정과 혜를 항상 같이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③ 원효는 일심에서 보면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眞如)와 선악이 뒤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生滅)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④ 원효는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며, 중생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지눌과 원효는 모두 자신의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고 보았다.

## 7. 노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인위가 가미되지 않은 무위(無爲)하는 자연의 모습을 도의 드러남이라고 보고, 자연으로서의 하늘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자에게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다.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고, 하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① 노자와 순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허정(虛靜)에 힘쓰고,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성악설의 관점에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후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③, ④ 노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므로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순자는 고대의 성왕(聖王)이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교화하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 예(禮)라고 보고, 예는 귀천의 등급을 매겨 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차등이 있게 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어울리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⑤ 노자는 긍정,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하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다. 순자는 예의를 몸에 익히려면 교육과 배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8.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베이컨이고,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베이컨은 우상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연역법이 아니라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 ③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다른 지식을 추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찾은 철학의 제1원리,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보았다.
- ⑤ 베이컨과 데카르트 모두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은 전통과 권위에 의존하여 생기는 선입견과 편견인 극장의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데카르트는 진리 탐구를 위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9.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즉 '좋은 삶(행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며,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물의 좋음은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에 있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므로 사물의 좋음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ㄴ).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는 품성적 덕에 해당한다.
- 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좋음[善]은 더 상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지만, 최고의 좋음[最高善]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된다.

## 10.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天理]인 본연 지성(本然之性)은 지극히 선하다고 보았다(ㄴ). 주희는 사물의 이치[理]를 궁구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ㄷ).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가 사욕에 가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치지(致知)로 보았다(ㄴ).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ㄱ. 주희는 부정, 왕수인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는 격물(格物)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격물을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았다.

### 11.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4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덕은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이며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 ③ 아퀴나스는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성 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 ④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성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지만, 인간의 최종 목적은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 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만으로는 최고의 행복 [至福]에 이를 수 없으며, 최고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소망·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12. 이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이이이고,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이(理)는 운동성이 없고 기(氣)는 운동성이 있다고 보고,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이 있다고 보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이는 이황에게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만 스스로 작용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발생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이황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다고 보았다.
- ② 이이와 이황은 모두 주희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단과 칠정이 모두 성(性)이 발현한 정(情)이라고 보았다. 성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의예지의 덕이 성으로 부여되어 있고, 성은 정으로 발현되며, 정의 구체적 내용이 사단과 칠정이다.
- ③ 이이와 이황은 모두 사단은 순선하지만 칠정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어 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이이와 이황은 모두 이와 기가 개념과 역할이 다르므로 섞일 수 없지만[理氣不相雜] 실제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理氣不相離] 보았다.

### 13. 플라톤의 이상 사회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좋음[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나 방위자 계층은 공적 생활을 위해 재산을 공유해야 하지만,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
- ③ 플라톤은 절제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이라고 보았다.
- 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4주덕을 갖춘 이상적 인간인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를 이상 국가로 보았다.

**14. 홉스와 로크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사회 계약의 주체인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주권이 부여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로크는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주권)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로크만의 입장이다. 로크는 국가 권력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홉스는 절대 군주를 강조하면서 국가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③ 홉스의 입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로크의 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홉스는 국가 성립의 목적을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 성립의 목적을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 ④ 홉스와 로크 중 어느 누구의 입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홉스는 국가 권력의 분할에 반대하여 입법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로크는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게 되면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의 권력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홉스와 로크의 공통 입장이다. 홉스와 로크는 모두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15.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고, 을은 온건적 개화사상인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이항로는 충효의 도의와 같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하자고 주장하였다(ㄱ, ㄷ).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東道]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온건적 개화사상을 주장하였다.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여 절대 군주제를 개혁하

자고 주장한 것은 급진적 개화사상이다.

ㄹ. 이항로와 신기선은 모두 유교 사상을 토대로 한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16. 칸트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의무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명령을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 명령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인 가언 명령으로 구분하고,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선의지와 경향성을 함께 지닌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며, 완전한 선의지를 지닌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 즉 준칙이 정언 명령의 원칙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지닐 경우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칸트는 인간이 자연의 모든 사물에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 17. 스피노자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스피노자이고, 을은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다른 사물과 달리 인간만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라고 보았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이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모든 것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
- ④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 ⑤ 스피노자는 인간이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고 보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이며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 18. 비롤리와 벌린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고, 을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다. 비롤리는 자유가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ㄴ).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보고,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이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비롤리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ㄴ. 비롤리는 국가의 간섭이 사라져도 시민이 자의적 지배를 받는다면 자유가 줄어든다고 보았다. 벌린은 간섭 그 자체의 완전한 부재보다도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하이에크, 케인스, 마르크스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 을은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 병은 사회주의 사상가인 마르크스이다.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모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고 착취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를 통해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모두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케인스는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③ 케인스는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인해 인간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이 노예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20. 페리클레스와 롤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페리클레스이고, 을은 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애 따라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이 주권자이며, 공직을 담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② 페리클레스는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롤스에 따르면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결과물이 아니라 심의의 절차에 달려 있다.

⑤ 페리클레스와 롤스는 모두 정치 참여에 있어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